

독일 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미디어 연구의 역사와 특징

이상현

1. 연구 대상과 목적

1996년 여름 학기 Tübingen 민속학연구소(이하 Tübingen 연구소)의 콜로키움(Kolloquien)¹ 주제는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였다. 당시 Herrmann Bausinger는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에 관한 연구 배경과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독일민속학 특히 경험문화학(Empirische Kulturwissenschaft)² 의 미디어 연구를 위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의 명제를 요약하면, 우선 경험문화학은 미디어와 관련된 학문이다. 다음, 경험문화학은 지역, 계층, 성별 그리고 일상문화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다른 분과학과 차별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속학은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Bausinger는 이미 1956년에 독일민속학에서는 최초로 미디어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대중가요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 이후 40년이 지난 1996년에, 그가 세운 연구소가 미디어를 연구해야 된다는 원론적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구나 자신이 독일민속학 회장이었던 1976년에, 미디어 연구를 위한 독일민속학회 주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위와 같은 주장을 다시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독일민속학회의 연구 경향, 그리고 미디어가 함축하고 있는 특성들이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보인다.

Bausinger가 최초로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를 주장할 당시에는 신문, 라디오 혹은 음반 정도의 미디어가 일반 독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매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종합 매체로서 컴퓨터가 대중화되던 시기였다. 시대마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영향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은 물론 연구 방법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독일민속학계는 1970년 이후 학문 명칭을 변경할 정도로 연구 대상과 방법론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40여년이 지난 후에도 위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독일민속학의 미디어 연구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신문 방송을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문 분과학문, 예를 들어 언론학 등에서 중점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 밖에도 대중문화를 추구하는 사회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반면 많은 국가의 민속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디어는 낯선 용어일 정도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전통적인 민속학의 연구 대상 혹은 연구 목적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종래 민속학의 주요 연구 대상의 하나인 구비문학은 미디어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술의 ‘문학’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뿐만 아니라 기왕의 민속학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 혹은 민족의 삶을 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미디어 등으로 인한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實은 미디어의 초기 형태인 책, 음반, 라디오 등에 민요, 설화 등의 민속학의 주요 연구 대상들이 실려 유통되어 온 까닭에, 산업화 시대의 민속에 관심이 있는 민속학자들은 일찍부터 미디어를 주목하고 그 연구를 수행했다.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übingen 연구소가 1960년대 이후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사적 배경, 그리고 미디어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특징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 특히 이 연구소를 1991년까지 이끌었던 Hermann Bausinger의 새로운 민속학 연구 방향과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 후반 Tübingen 연구소가 추구한 기존 민속학의 민요연구 비판과 가요에 대한 연구, 1970년대 독일민속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 특히 Frankfurt학파의 비판적 사회과학에 영향을 받은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미디어에 관한 미디어학 분야와 Tübingen 연구소 성과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 보겠다.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겠다.

2. 60년대의 가요와 대중소설 연구: Tübingen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 경향

Bausinger가 대중가요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무렵 그는 Tübingen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이 연구소에는 독문학자(Germanistik)인 Hermann Schneider와 Helmut Dölker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민요, 설화 등의 구비문학과 지역 축제인 사육제, 그리고 Württemberg 지역의 方言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Bausinger는 1952년에 그의 고향인 Aalen을 중심으로 Württemberg 동북부 지역 여러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⁶ 이 학위논문에서 Bausinger는 기존 구비문학의 연구와 달리, 설화 등의 옛이야기가 아닌 조사 지역 주민들의 현재 이야기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것들의 유형 분류와 함께 그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 Bausinger는 同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Arno Ruoff와 함께, 연구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Württemberg 지역 여러 도시와 마을의 방언, 이야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의 전승 및 변화 양상에 있어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Bausinger는 회고한 바 있다.⁷

이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에 관심을 갖고 조사와 연구를 했는데, 이는 기왕의 민속학자들이 지역의 민요와 설화에 대해 행한 조사, 연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Bausinger는 민요와 설화를 현재의 노래, 이야기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 하였는데, 그 최초의 연구 성과가 앞에서 언급한 ‘민요와 가요’에 대한 논문이다.

Bausinger는 여러 번의 현지조사를 통해, 민요에 대한 기존 개념 규정과 조사 당시 민요가 불리는 상황 사이에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요는 일반적으로 민족과 민중의 노래로서 특정 지역의 민족 혹은 주민들의 음악적 특징 그리고 그들의 생활 특징을 잘 담고 있다. 대부분의 민속학자들은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그가 현지조사를 행할 당시 민요는 이미 학교 혹은 합창동호회(Gesangverein) 등에서만 불리고 있었다. 또한 산업화 이전에는 마을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양한 민요가 불리고 있었을 것이나, 조사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진 민요만 접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에서 ‘민요(Volkslied)’라는 용어를 만들고 여러 지역의 민요를 수집하여 연구한 이는 Herder이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민족의 특성이 민족의 노래 즉 민요에 잘 함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민족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민요에는 Goethe의 시 중에서 향토적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시민들의 노래를 ‘소리친다’라고 경멸할 정도로, 동시대 민중들의 노래에는 관심이 없었고 민요의 범주에 그것을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Herder의 민요에 대한 인식과 범주는 후대 독일 민요 연구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들이 수집한 민요들은 인쇄되어 후대의 민요 전승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 대중가요에 대해서 당시 혹은 이전 민속학자들은 민족적 색채가 없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이에 대한 관심 내지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에서 대중가요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일상적인 노래로 자리 잡았고, 1930년대 마을의 민속 전승 상황을 현지 조사하였던 독일민속학자들은 이미 당시에 농촌 마을에서도 대중가요가 일상적인 노래로 많이 불리고 있다고 보고할 정도였다.⁹

Bausinger는 민요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비판하고 대중가요 연구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민요의 가요화를 언급하였다. 민요는 대중매체, 레코드판 혹은 라디오를 통하여 전파되고, 이를 일반인들이 가요처럼 쉽게 부르게 되는 현상을 주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대중가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민요 연구가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대중가요는 작업 현장에서도 흔히 불리고 있고, 또한 특정 세대에 따라 여러 대중가요가 불리고 있는데, 이처럼 기존 농촌 사회에서 민요가 갖고 있던 기능을 대신하여 대중가요가 그것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Bausinger는 민요와 대중가요의 기능적 동가성(funktionale Äquivalenz)을 강조하였고, 민요 대신 현재 독일 사람들의 노래 문화를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는 그가 1950년대 후반에 실시한 민속의 현재적 기능에 대한 조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Bausinger는 Herbert Schwedt, Markurs Braun과 함께 戰後 동구권에서 Baden-Württemberg 州로 이주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1959년에 『새로운 이주(移住). 민속학적-사회학적 조사(Neue Siedlung. Volkskundlich-soziologische Untersuchungen)』¹⁰란 연구서를 출판하게 된다. 이 연구는 1947년 Tübingen 연구소가 동구권에서 이주한 독일 사람들의 문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본디 그 목적은 이주민들이 이주하기 이전의 문화를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Bausinger와 다른 두 연구원은 당시 구체적인 이주 현황을 기술하고, 새로운 이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회 모임과 조직의 종류와 특징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주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이주 이전의 문화를 활용하는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민속학자들은 이주 이전의 문화를 독일의 과거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Bausinger 등은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이전의 문화 혹은 그들의 전통문화가 활용되는 배경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주 계획에 대한 이주민들의 반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원들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고향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특징은 민속의 전승과 변화를 이주민들의 새로운 환경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副題에 보이듯이 사회학적인 방

법을 활용하여 조사, 연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위의 성과 이외에 Bausinger가 미디어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연구로 『과학기술세계 속의 민속문화(Volkskultur in technische Welt)』를 들 수 있다.¹¹ 그의 교수자격 청구는 문으로서, 독일 사람들의 현재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 민속학의 연구 대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는 그 가능성을 이 연구에서 타진하였다.¹²

그는 기존 대부분의 민속학 연구가 대상화한 민속이 기술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공간, 시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공간과 관련해서, 민중의 생활은 여행이나 방송 등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세계가 확장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민속 등에 관심이 증가된다. 이러한 관심은 기행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교류, 예를 들어 합창대회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의 민요를 다른 지역에서도 부르는 행위가 등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촌마을을 고향으로 인식하여 농촌 지역의 민속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음 시간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서, 급속한 변화로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인식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과 장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민속에 대한 관심의 등장과 활용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민요를 방송하는 배경, 그리고 민요가 녹음된 레코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구입 배경도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합창동호회에 참여하여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시간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변화와 민속과의 관계이다. 과거 민속이 전승되던 시대는 계급 사회였으나,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는 계층 사회이며 더구나 급속하게 그 계층이 분할되는 시대이다. 계층이 분할되는 시대에 다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령 19세기 시민계급이 민속에 관심을 갖는 행위, 그리고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의 생활양식을 흉내 내는 행위를 그 예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계층이 분할되는 시기에는 모든 계층이 동일한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현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등장 배경으로, 우선 민족 국가 형성이라는 이념적,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공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상적 태도의 증가가 민속을 비롯하여 과거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계층이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민요 특히 서정적인 민요에 대한 관심 혹은 농촌의 목가적인 가족 생활에 대한 소설의 인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Bausinger는 보았다.

위와 같이 산업화 이후 독일 사람들의 새로운 삶 속에서 민속의 역할을 분석한 이후, Bausinger와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미디어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1960년대 초기는 주로 고전적인 민속학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민요와 가요, 그리고 민족문학(Volkspoesie)과 통속문학(Trivialliteratur)을 중심으로 미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통속문학 분야의 최초 연구로 애정 소설의 내용을 분석한 『20세기의 평범한 가정과 애정소설(Der triviale Familie und Liebesroman im 20. Jahrhundert)』¹³을 들 수 있다. 이후 전쟁소설 소책자의 독자층(die Leserschaft von Kriegsromanheften) 연구¹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다룬 소설(Western, 이하 서부소설) 연구¹⁵ 등이 이루어졌다.

통속문학에 대한 Tübingen 연구소의 방법은 주로 텍스트 분석 즉 내용 분석(Inhaltanalyse),¹⁶ 그리고 그 생산 환경과 독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부 소설 연구의 경우 총 4개 항목으로 조사와 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서부개척 시대 소설의 역사를 고찰했다. 이어 그 내용 분석으로 등장인물들 즉 영웅을 비롯한 악당, 인디언과 군인 등 소설의 주변 인물을 천착했고, 소설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부 소설의 문학적 특징, 이를테면 행동 구조, 시간과 공간 분석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부 소설의 생산 환경과 독자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기존 민속학의 주요 연구 분야인 민족문학의 연구 방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설화로 대표되는 민족문학에 관한 기존 독일민속학의 연구에서는 그 유형과 장르, 역사적

변화 과정 그리고 지역적 차이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분석하였다. 반면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현재 많은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속문학을 주목하고, 그 내용 분석과 함께 생산 환경과 독자 등을 미디어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노래에 대한 연구 성과로 넘어가면, Tübingen 연구소에서 최초로 행한 민요와 가요에 대한 연구로 Hermann Fischer의 『민요, 대중가요, 인기곡(Volkslied - Schlager - Evergreen)』¹⁷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Fischer는 가사와 유형 그리고 지역적 변이 등 기존 민요의 연구 대상이나 방법과 달리, 학교, 동호회(Verein) 혹은 식당 등의 현장에서 불리고 있는 노래를 조사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천착하였다. 조사 지역은 Tübingen에 인접한 공업도시 Reutlingen 市였으며, 그곳에서 노래가 불리는 현장 조사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음악책, 동호회의 노래 책자,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 방송되는 노래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대중가요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령 Werner Mezger는 독일의 대중가요를 문화산업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¹⁸ 그는 먼저 대중가요가 생산되는 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신문과 광고, 대중스타의 등장과 팬클럽 등 가요 홍보의 수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1920년부터 1970년까지 독일 대중가요의 역사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서, 대중가요의 음악과 텍스트에 관한 내용 분석, 그리고 대중가요와 대중스타에 대한 팬들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본 연구들은, Tübingen 연구소가 1970년대에 들어와 기존 민속학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미디어 연구에서 점차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연구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성과들이다. 이 시기에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는 주로 방송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 등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는데, 방법론적으로는 Frankfurt학파의 문화산업 비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3. 70년대의 방송 매체 연구와 Frankfurt학파의 문화산업 연구

민요와 대중가요에 대한 미디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Tübingen 연구소의 방송 매체에 대한 연구는 민요 등 주로 민속음악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민속음악을 방송하는 방송국의 방송 정책 특징과 문제점, 방송으로 인한 민속음악의 변화 양상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음악문화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민속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한 연구의 예로 『고향방송, 민속학, 포클로리스무스(Heimatfunk - Volkskunde - Folklorismus)』¹⁹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민속음악을 송출하는 방송과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를 ‘고향방송(Heimatfunk)’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고향방송의 수와 위치, 방송 담당 지역 그리고 방송 시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방송 담당자에게 고향의 의미, Folklore²⁰와 Folklorismus²¹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저자는 고향방송은 Folklorismus를 생산하는 주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거기서 방송되는 민요를 대상으로 민속음악의 종류의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Folklorismus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이 연구는, 당시 독일민속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던 전공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송을 중심으로 매체의 특성을 민속학자와 전공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위 책의 저자는 민속음악 선정에 있어 청취자와 시청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민속음악 혹은 지역의 민속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담당자들의 음악 선정 작업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특

히 방송국의 지역민속 정책에 따라 민속음악을 선정하는 향토방송의 작업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방송 매체의 작업과 민속음악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던 배경에는, 물론 독일민속학자 특히 Tübingen 연구소의 민속학자들이 매스미디어를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였던 Frankfurt학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연구를 비롯한 Frankfurt학파의 영향은 Falkenstein 특별학술대회(이하 Falkenstein대회)에서 행한 Tübingen 연구소 연구자들의 학문적 입장 표명에 잘 드러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69년의 Falkenstein대회는 戰後 독일민속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 주제는 「독일의 민속학: 개념, 연구의 문제 그리고 학문적 경향성 (Volkskunde in Deutschland. Begriffe, Probleme, Tendenzen)」이었고,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²²

이 다섯 개의 소주제 중에 Tübingen 연구소가 여타 독일대학의 민속학연구소와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이 두 번째로 거론된 「민속학의 인식론적 목적(Erkenntnisziele der Volkskunde)」이었다. Tübingen 연구소원들은 기존 민속학 연구는 주로 낭만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념 지향적 학문이었다는 까닭에, 다양한 독일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과 생활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기존 민속학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여성 등과 같은 다양한 독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Tübingen 연구소의 학문적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다섯 번째 소주제였던 「이론과 실천(Theorie und Praxis)」에 관한 논의였다. 同 연구소원들은 이론 지향적 학문 연구로는 독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²³ 그리고 이들은 독일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사회 및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alkenstein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민속학 연구에 대한 문제 인식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대회 종료 후에 “독일민속학은 대상들(규범, 풍습, 물질)의 문화적 가치와 주제들(관련 집단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며,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방법 제시에 있다”²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앞서 언급한 Tübingen 연구소의 입장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종래 민속학에서의 대상 선정 문제, 그리고 여성이나 노동자와 같은 소외자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주장하면서, 비판적 사회과학을 추구한 Frankfurt학파의 영향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 Frankfurt학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문으로는 Roland Narr의 「비판적 사회과학으로서의 민속학(Volkskunde als Kritische Sozialwissenschaft)」²⁵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Falkenstein대회 이후 Tübingen 연구소에서 同 대회에서 주장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찬한 논문집 『민족의 삶으로부터 이별(Abschied vom Volksleben)」²⁶에 실려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Frankfurt학파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핵심적인 연구 목적과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민속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Frankfurt학파의 기본적인 연구 목적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 변화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우선 외부의 시선, 특히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조사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의 특징 특히 계급사회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 제시 그리고 실천 행위가 성공사회(gelunge Gesellschaft)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아울러 Frankfurt학파 연구자들은 현재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으로,

자본주의 생산 구조의 문제 이외에 교육 등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지식인들의 무비판적인 사회 연구와 경제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속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이 과거와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환상’으로 인하여 계급의 문제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민속학자처럼 이러한 대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행위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계급 사회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Frankfurt학과 연구자들은 지적하였다. 독일민속학자 특히 Tübingen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기존 민속학 연구를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연구 대상 선정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화산업(Kulturindustrie)에 대한 Frankfurt학과의 비판이 Tübingen연구소의 미디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Frankfurt학과의 연구자들은 문화산업이 사회 구성원들의 계급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화된 시대에는 인간관계가 상품 생산과 소비 관계로 인식되는 이른바 사물화 현상(Warencharakter)이 지배하게 되고, 문화산업은 이러한 사물화 의식을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사물화된 세계에서 대중들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환상에 도피하고 안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계급 모순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Frankfurt학과의 이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방송 매체의 민속음악 방송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가령 Tübingen 연구소의 Eckart Frahm은 1960년대 이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민요 등의 민속음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는 방송 매체에 등장하는 민속음악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였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음악에 관한 Frankfurt학과의 비판적 인식을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방송 매체의 민속음악의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민속음악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자와 시청자들에게 익숙하고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더구나 방송 매체는 방송의 특성상 독일 전역 혹은 방송 송출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민속음악을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민속음악은 이러한 심리적 기능을 대중가요 등의 다른 대중음악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대중음악의 사물화 기능을 대중가요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민속음악은 대중가요처럼 사회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방송 매체의 방송 인기 순위를 분석해보면, 사회 및 정치의 위기 상황에는 민속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곤 한다. 당연히 그 방송횟수가 증대되면, 일반적으로 민속음악이 실린 음반이 많이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

세 번째로 민속음악은 제목이 간단하고 내용이 단순하며 또한 익숙한 리듬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중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주제가 산업화 시대에 잊혀져가는 고향, 낭만적 사랑 등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속음악은 대중음악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방송된 민속음악이 Frankfurt학파가 제기한 문화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그 어떤 장르보다도 더 자세히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Tübingen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강조하였다.

물론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 특히 방송매체 연구는 Frankfurt학파의 문화산업론과 비판적 사회과학의 영향만을 받은 게 아니다. 당시 방송매체가 노래문화 혹은 이야기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도 Tübingen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연구 경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Tübingen 연구소 내에서 Frankfurt학파의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 것과 연관이 있다.

4. 80년대 새로운 미디어 연구와 일상생활 연구

대중매체를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던 Frankfurt학파와 달리, 일부 음악민속학 연구자들은 방송매체가 일반인의 노래 문화 혹은 이야기 문화에 끼친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다. 가령 Ernst Klussen는 노래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이른바 ‘노래방송’을 조사하여 그것이 일반 독일 사람들의 노래 문화에 주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²⁷ 그는 독일 사람들이 어떤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악 책이나 음반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노래를 더 많이 습득하게 된다는 기왕의 조사 결과²⁸를 바탕으로, 노래방송과 거기에 참가하는 방청객 그리고 노래 방송 시청자와 청취자를 분석하였다.²⁹

먼저 그는 노래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과 방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 시간, 횟수, 방송 공개 여부, 방송용 노래책 활용 여부(출판 및 배송)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시청자 혹은 청취자를 참여시켜 특정 노래를 가르치는 이른바 ‘Offen Singen’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세대, 계층, 거주 지역 등) 그리고 참여 동기 등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노래방송 청취자 혹은 시청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특징, 청취 혹은 시청의 배경 그리고 노래방송이 일상적 노래에 주는 영향 등을 서면 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담당자-수신자 분석 모델(Sender - Empfänger - Modell)’을 제시하였다.

이후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청취자 혹은 수신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던 미디어 분석 방법에서 점차로 미디어와 방송 수신자의 일상생활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되었다. 미디어에 관한 독일민속학 특히 Tübingen 연구소의 이러한 연구 방향의 변화는 1970~80년대 일상생활에 관한 독일민속학의 관심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Falkenstein대회 이후 Frankfurt학파의 문화산업 연구에 기반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연구가 진행될 당시, 일부 Tübingen 연구소원들은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제시된 여성, 노동자 등을 천착하기 위하여 기존 민속학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농촌마을을 다시 조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농촌마을의 일상생활 특히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일상생활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데 있어 Tübingen 연구소가 농촌마을을 선택한 까닭은 기존 민속학에서 민속의 전승 현상으로서만 농촌마을을 대상화한 그 연구 방법을 비판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또한 현재의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연구하였던 사회학과 달리,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운영에 있어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민속학적 일상생활 연구의 특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의 일상생활과 그 변화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후 독일민속학의 일상생활 연구는 점차로 농촌 마을의 일상생활과 그 변화 양상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의 다양한 집단의 일상생활 연구로 확대되었고, 미디어와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관심 대상과 방법론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가령 Bausinger는 아침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을 때 구독자의 반응이나 혹은 텔레비전 채널 주도권 싸움 등의 모습에서 볼 때, 미디어 없는 현재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에서 반드시 미디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미 『과학기술세계 속의 민속문화』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후 그것을 구체화한 일련의 성과들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³⁰

敷衍하면, 바로 앞서 인용한 글에서 Bausinger는 가상의 가족(Meier씨와 그의 가족)의 주말 생활과 미디어의 활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Bausinger는 Meier씨가 토요일 오전에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오는 길에 차를 세차하는 등의 일상적 모습을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Meier씨가 집에 돌아와

서 신문을 읽으면서 보고된 내용에 관해서 부인과 이야기하는 모습, 자녀들이 라디오 소음 문제로 다투는 모습, 토요일 저녁 독일 스포츠 방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Sport Studio’ 시청과 거기에 출연한 체육인들을 둘러싼 부인과의 사소한 논쟁을 기술하였다. 또 일요일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Bild am Sonntag’ 구입과 그 기사 내용 중에 특정 축구팀에 대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Meier씨와 서로 다른 프로팀을 응원하는 장남과 딸인 사소한 논쟁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미디어의 관계를 세밀히 기술한 다음 Bausinger는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와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미디어의 형태는 다양하며 매체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미디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며 그 방법도 미디어마다 다양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디어와 일상생활의 관계를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상생활과 미디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미디어 전문연구자들은, 그들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독일민속학의 일상생활과 미디어 연구와의 공동 연구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³¹ 이들에 따르면, 기존 미디어 연구의 역사는 대부분 미디어의 생산에 관한 것이었고, 미디어와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반면 Bausinger를 비롯한 일부 독일민속학자들은 미디어와 그 수용자들의 관계 특히 일상생활이라는 영역에서의 관계를 주목했고, 따라서 미디어 연구와 민속학 연구의 공동 연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두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미디어 연구자들이 일상생활 속의 미디어 역할을 민속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 가족이라는 범위로 한정하여 그 연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들은 공동 연구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는 가족과 친족이 개인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정 규범 등이 전달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다른 분과학문보다 민속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미디어 시대로서 미디어가 개인의 사회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속학에서 미디어의 사회화 과정을 천착할 경우, 현재의 가족과 친족의 특징 그리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상생활은 다양한 개인들이 상호 소통을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과거 경험, 현재 생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이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디어와 관련된 행동, 특정 시간과 공간에 활용되는 미디어 종류 혹은 미디어의 특정 프로그램(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장르)의 선택 혹은 활용 등의 일상적 행동 속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잘 볼 수가 있다.

미디어와 관련된 행동을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유형과 개개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활용 배경과 목적에 대한 지식에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이 잘 함축되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식에 대한 조사를 가족의 성립과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연관하여 분석할 경우, 일상생활과 미디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개개인이 특정한 미디어를 선정하는 이유와 그 활용 배경, 목적 등을 통하여 미디어의 영향은 물론, 가족 혹은 특정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 전문 연구자는 미디어의 역사 혹은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디어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일상생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민속학자들은 두 대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연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Tübingen 연구소나 독일민속학계 차원에서 그 제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활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텔레비전 드라마의 연구, 특히 인기 연속극, 예컨대 시청률 61% 점유하였던 ‘Schwarzwaldklinik’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된 적은 있다.³² 덧붙여 이 시기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청소년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³³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디어와 일상생활에 대한 학술대회는, 양자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Tübingen 연구소가 아닌, 스위스 Zürich대학 민속학연구소에서 1998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³⁴

일상생활과 미디어 연구를 Tübingen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던 이유로, 우선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의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뉴미디어 기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에는 민속학자로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외에 연구소의 내적인 요인으로, 1990년대부터 역사적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디어 분야도 근대 독일의 삶과 미디어의 역할 등 역사적 연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소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5. 마무리

본 연구는 독일민속학 특히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대중가요와 대중소설에 대한 Tübingen 연구소의 연구 배경과 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앞서 이러한 연구의 단초가 되었던 1950년대 연구소 특히 Bausinge의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970년대에는 방송 매체에 대한 연구 특히 민속음악과 관련된 방송매체의 연구 경향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방송매체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언급하였다. 방송매체에 대한 Tübingen 연구소의 비판적 연구의 특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의 비판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Frankfurt학파의 문화산업 연구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독일인의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 관계에 대한 Tübingen 연구소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1990년대 Tübingen 연구소에서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 연구 경향과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연구 대상 시기가 40여년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연구 대상도 대중음악, 대중매체 등 다양하여 연구자의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학술대회 주제인 미디어와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를 너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Tübingen 연구소의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경향과 방법을 소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민속학자들의 미디어 그리고 일상생활 연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注

- 1 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에서는 매 학기 특정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 콜로키움에는 연구소의 교수와 학생이 모두 참가하고, Magister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1번 이상 이 학술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 발표해야 한다.
- 2 독일대학의 민속학연구소 명칭은 1970년대 초반에 많이 바뀐다. 그것은 후술하는 1969년 독일민속학의 특별학술대회 이후의 새로운 연구 방향과 연관되어 있다. Tübingen 대학의 경우 민속학연구소에서 경험문화학 연구소로 改名하였다.
- 3 Hermann Bausinger, 'Medienforschung am Ludwиг-Uhland-Institut. Ein Rückblick', Tübinger Vereinigung für Volkskunde e.V.(Hrsg.), Tübinger Korrespondenzblatt Nr. 46, 1996, pp.6~11.
- 4 Hermann Bausinger, 'Volkslied und Schlager', Jahrbuch des Österreichischen Volksliedwerkes V, Wien, 1956, pp.37~43.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Hermann Bausinger und Elfriede Moser-Rath(Hrsg.), Direkte Kommunikation und Masskommunikation. Referate und Diskussionsprotokolle des 20. Deutschen Volkskunde-Kongresses in Weingarten, Tübingen, 1976으로 출판되었음.
- 6 Herrmann Bausinger, 'Lebendiges Erzählen. Studien über das Leben volkstümlichen Erzählgutes auf Grund von Untersuchungen im nordöstlichen Württemberg' Diss. Tübingen, 1952.
- 7 Hermann Bausinger 외, Ein Aufklärer des Alltags. Der Kulturwissenschaftler Hermann Bausinger im Gespräch mit Wolfgang Kaschuba, Gudrun M. König, Dieter Langewiesche, Bernhard Tschofen, Köln, 2006, p.9.
- 8 후에 민속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이를 문화라는 용어로 개념 규정하였다.
- 9 Julius Schwietering, 'Das Volkslied als Gemeinschaftslied', Euphorion 30Bd. 1929, pp.237.
- 10 Hermann Bausinger 외, Neue Siedlung. Volkskundlich-soziologische Untersuchungen. Tübingen, 1959.
- 11 Hermann Bausinger, Volkskultur in technische Welt, Frankfurt/Main, 1986.
- 12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 번역되어 있어 본 발표에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책의 특징을 요약토록 하겠다.
- 13 Dorothee Bayer, Der triviale Familie und Liebesroman im 20. Jahrhundert, Tübingen, 1963(Volksleben Bd. 1).
- 14 Klaus F. Geiger, Kriegsromanhafte in BRD. Inhalt und Funktionen. Tübingen, 1974.
- 15 Jean-Ulrich Davids, Das Wildwest-Romanheft in der Bundesrepublik. Ursprünge und Strukturen. 2.erw. Auflage, Tübingen, 1975.
- 16 독일민속학의 내용 분석으로는 Klaus Geiger, 'Schwierigkeiten mit "Inhaltsanalyse" im Rahmen der Ideologi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68, 1972, pp.236~241을 참고하기 바람. 이 논문은 군인들의 노래(Soldatenlied) 분석을 비판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민속학적 내용 분석의 방법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7 Hermann Fischer, Volkslied-Schlager-Evergreen. Das lebendige Singen aufgrund von Untersuchungen im Kreis Reutlingen. Tübingen, 1965(Volksleben Bd.7).
- 18 Werner Mezger, Schlager. Versuch einer Gesamt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Musikmarkt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übingen, 1975.
- 19 Heinz Schilling, 'Heimatsfunk - Volkskunde - Folklorismus', Hermann Bausinger und Elfriede Moser-Rath(Hrsg.), 앞의 책, pp.127~134.
- 20 독일어에서 Folklore는 일반적으로 민속음악 등의 민속예술 특히 외국의 민속예술 그리고 재현된 민속예술 등을 의미한다.
- 21 Folklorismus는 만들어진 민속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포크로리즘이라고 지칭한다. 이 용어는 역사학적 민속학을 추구하였던 Hans Moser가 관광 등의 상업적 목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전승이 단절된 민속을 재현하거나 전승된 민속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민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정성을 상실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반면 Bausinger는 민속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민속을 진정성이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Folklorismus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Hermann Bausinger, 'Zur Kritik der Folklorismuskritik', Populus Revisus, Tübingen, 1966, pp.61~75.
- 22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Wolfgang Brückner (Hrsg. und Bearb.), Falkensteiner Protokolle, Frankfurt/Main, 1971에 실려 있음.
- 23 Hermann Bausinger는 민속학의 연구대상이 구비문학 등의 언어생활, 종교생활, 물질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론으로는 이러한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Hermann Bausinger, 'Zur Theoriefeindlichkeit in der Volkskunde', Ethnologia Europaea, 1968~1969/Volume II-III, pp.55~58.
- 24 Wolfgang Brückner, 'Falkenstein Resolution', 앞의 책, p.303.
- 25 앞의 책, pp.37~73.
- 26 Herrmann Bausinger 외(Hrsg.), Abschied vom Volkleben, Tübingen, 1970.

- 27 Ernst Klusen, 'Einflüsse von Funk und Fernsehen auf lebendiges Singen', Hermann Bausinger/Elfriede Moer-Rath(Hrsg.), 앞의 책, pp.97~103.
- 28 Ernst Klusen, Zur Situation des Sing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1974 und 1975.
- 29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Köln대학의 음악민속학연구소(Institut für Musikalische Volkskunde)에서 많이 진행하였다.
- 30 일상생활과 미디어에 관한 Bausinger의 연구 성과로 Hermann Bausinger, 'Alltag, Technik, Medien', Harry Pross und Claus-Dieter Rath(Hrsg.), Rituale der Masskommunikation. Gänge durch den Medien Alltag, Berlin, 1983, pp.24~36; Herrmann Bausinger, 'Alltägliche Herausforderungen und mediale Alltagsträume. Hermann-Josef Schmitz und Hella Tompert(Hrsg.), Alltagskultur in Fernsehserien, Stuttgart, 1987, pp.9~28. 그리고 Hermann Bausinger, 'Ist der Ruf erst ruiniert... Zur Karriere der Unterhaltung', Louis Bosshart und Wolfgang Hoffmann-Reim(Hrsg.), Medienlust und Mediennutz., Unterhaltung als öffentliche Kommunikation., München 1994, pp.15~27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발표자는 'Alltag, Technik, Medien' 논문을 중심으로 Bausinger의 Alltag과 미디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 31 Klaus Jensen/Jan-Uwe Rogge, 'Überlegungen zu einer Theorie des alltäglichen Umgang mit Massenmedien in Familien', Utz Jeggle 의 (Hrsg.), Tübinger Beiträge zur Volkskultur, Tübingen, 1986, pp.301~320. 이 논문이 실린 책은 Bausinger의 60회 생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판된 기념 논총이다. 이 글을 쓴 두 연구자의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구는 독일민속학자들의 텔레비전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 기념 논총에 글을 실게 되었다.
- 32 Michael Prosser, 'Das Phänomen "Schwarzlinik", Landesstelle für Volkskunde Freiburg badisches Landesmuseum Karlsruhe und der Landestelle für Volkskunde Stuttgart Württembergisches Landesmuseum Stuttgart(Hrsg.), Beiträge zur Volkskunde in Baden-Württemberg. Band 5, Stuttgart, 1993, pp.97~143. Tübingen 연구소에서는 텔레비전 연속극에 관한 세미나와 프로젝트가 개최되었으나 연구서 혹은 논문의 형태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 33 Ute Bechdolf, 'Watching Madonna. Anmerkungen zu einer feministischen Medien/ Geschlechterforschung'. Jermann J. Kaiser(Hrsg.), Geschlechtsspezifische Aspekte des Musiklernens. Essen, 1996, pp.23~44.
- 34 이 학술대회는 1998년 11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당시 민속학, 미디어학, 역사학 등 여러 분과학문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다큐멘터리 영화, 라디오, 음반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 Bausinger, Hermann, 'Volkslied und Schlager', Jahrbuch des Österreichischen Volksliedwerkes V, Wien, 1956.
- _____, Volkskultur in technische Welt, Frankfurt/Main, 1986.
- _____, 'Medienforschung am Ludwig-Uhland-Institut. Ein Rückblick', Tübinger Vereinigung für Volkskunde e.V.(Hrsg.), Tübinger Korrespondenzblatt Nr. 46, 1996.
- Bayer, Dorothee, Der triviale Familie und Liebesroman im 20. Jahrhundert, Tübingen(Volksleben Bd. 1), 1963.
- Brückner, Wolfgang(Hrsg. und Bearb.), Falkensteiner Protokolle, Frankfurt/Main, 1971.
- Davids, Jean-Ulrich, Das Wildwest-Romanheft in der Bundesrepublik. Ursprünge und Strukturen. 2.erw. Auflage, Tübingen, 1975.
- Klaus Geiger, 'Schwierigkeiten mit "Inhaltsanalyse" im Rahmen der Ideologi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68, 1972.
- Fischer, Hermann, Volkslied-Schlager-Evergreen. Das lebendige Singen aufgrund von Unterschungen im Kreis Reutlingen (Volksleben Bd.7), Tübingen, 1965.
- Geiger, Klaus F., Kriegsromanhafte in BRD. Inhalt und Funktionen. Tübingen, 1974.
- Jensen, Klaus/Rogge, Jan-Uwe, 'Überlegungen zu einer Theorie des alltäglichen Umgang mit Massenmedien in Familien', Jeggle, Utz 의(Hrsg.), Tübinger Beiträge zur Volkskultur, Tübingen, 1986.
- Klusen, Ernst, Zur Situation des Sing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1974 und 1975.
- Mezger, Werner, Schlager. Versuch einer Gesamt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Musikmarkt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übingen, 1975.
- Moser-Rath, Elfriede und Bausinger, Hermann(Hrsg.), Direkte Kommunikation und Masskommunikation.

Referate und Diskussionsprotokolle des 20. Deutschen Volkskunde-Kongresses in Weingarten, Tübingen, 1976.
Schwietering, Julius, 'Das Volkslied als Gemeinschaftslied', Euphorion 30Bd. 1929.